

법제처,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박차

- 인공지능(AI)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12월 대국민 개통 예정
-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발전방향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금),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주)솔트룩스(서울 송파구 소재)를 방문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간점검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제시했고, 참석자들은 해당 기술을 법제처 법령정보서비스에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용어나 정확한 법령 명을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했지만,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 질문을 통해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다음 예시와 같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궁금증을 문장이나 단어로 입력하면 관련 법령의 해당 조문이 검색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예시 화면>

법령 조문

법령 별표·서식

행정규칙 조문

행정규칙 별표·서식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음화반포등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허사에 반하여 상적·확장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음화제조 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회개정 1995.12.29]

AI 학습을 통해 사용자가 많이 찾고
정확도가 높은 법조문을 검색

현재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용어와 법령용어, 법령간의 관계정보를 연결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약 71만 건, 법률관련 질의·답변(QnA) 데이터셋 약 2만 4천 건을 수집하여 AI 모델을 통해 반복학습을 수행 중이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법령을 정확히 검색하기 위해 이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AI 인지검색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분야에서도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법제처에서도 AI를 연계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AI 법령검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몇 년 내에 법령 조문뿐만 아니라 제·개정 취지, 관련 판례와 해석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생성형 AI: 텍스트, 이미지 등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 기술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법령데이터혁신팀	책임자	과 장	이영진	(044-200-6782)
		담당자	사무관	하선우	(044-200-6784)

